

제 3부 윤리적 소비 실천의 성장: 6장 녹색소비



강의 목표



- 1. 윤리적 소비로서의 녹색소비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2. 녹색소비 촉진정책 및 구매, 사용, 처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소비의 실태 및 현황을 이해한다.
- 3. 녹색소비 실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윤리적 소비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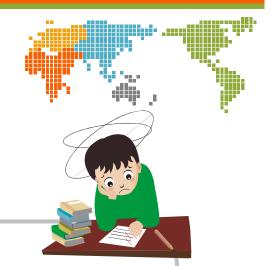


- 1. 녹색소비란 무엇인가?
- 2. 녹색소비는 왜 해야 하는가?
- 3. 녹색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 4. 윤리적 소비자는 어떻게 사는가?
 - 다른 생각 다른 견해
 - 녹색소비의 이해를 돕는 책
 - 녹색소비의 이해를 돕는 영상





생각해봅시다



- 나의 소비행동 중 지구 환경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지구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행동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Green list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봅시다









1. 녹색소비란 무엇인가?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란?]

- 녹색소비와 관련된 개념
- '저탄소 녹색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의식적 소비', '환경의식적 소비'(손상희 외 3인, 2010)
- 미래세대의 소비기반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체계를 의미
- 자연자원의 추출, 처리과정, 상품제작과정, 상품의 구입, 소비, 처리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
- 친환경적 소비는 물질순환의 전 과정을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각 구성요소를 소비함으로써 인간이 감수해야 할 환경피해를 극소화하는 것







[녹색소비의 필요성]

지구는 무한한 인간의 소비욕구를 언제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까?

'지구용량초과의 날' (Earth Overshoot Day)

- 국제환경단체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의 세계생태발자국 추정치에 의해 발표
-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개념
-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준 한 해치 분량의 자원을 모두 써 버린 날
- 그해의 생태자원 소비량이 지구의 연간 갱신(재생 또는 흡수)능력을 초과하는 날
- 지구용량 초과의 날은 언제?

1970년대 초반 12월 하순, 1990년대 들어 10월, 2000년대 들어 9월 2010년대 들어 8월, 2010년 8월 14일, 2016년은 8월 8일







[생태발자국]

-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그 자원의 생산에 필요한 땅면적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 전 세계인의 현재 자원 소비수준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1.6개의 지구가 필요
-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생태자원을 소비하면서 살려면 지구3.3개가 필요
- 한국이 생태자원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8.4배의 땅이 필요







[파리 기후 협약]

- 과정
- 1990년 UN'국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설립
-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년),
- 기후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 발효(2005년)
-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파리협정' 채택
- '기후 변화협약'의 목표
-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 우리나라 전략
-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 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축수단을 찾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환경부, 2015).







[녹색소비의 효과]

환경친화적 녹색소비를 실천한다면

첫째, 시장지향적 소비사회에서 친환경적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함께하는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관계성이 회복됨으로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대

둘째, 기업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정부와 기업에 대한 녹색정책의 실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녹색환경에의 효과를 기대
-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소비사회 지향성은 기업에게는 그린생산에 대한 투자, 그린상품 생산, 그리고 진정한 그린마케팅을 하도록 자극
- 정부는 기업에게 이런 녹색생산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소비자들이 녹색소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정책 방안을 마련

셋째,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 소비는 개인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개인에 머물지 않으며 생산, 환경 등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녹색소비자란?]

- 자신들의 소비행동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정도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
- 시민적 자각을 통해 일상생활을 통한 친환경적 소비체계, 즉 환경을 배려한 사고와 행위가 진행되는 소비활동을 지향한다. 때문에 녹색소비자를 친환경소비자 또는 사회의식적 소비자

[친환경소비]

- 자연자원의 추출, 처리과정, 상품제작과정, 상품의 구입, 소비, 처리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서 물질순환의 전 과정을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각 구성요소를 소비함으로써 인간이 감수해야 할 환경피해를 극소화하는 소비
- 소비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이용공간, 생태적 발자취, 생태 배낭, 생태적 효율성, 식품수송거리 등의 기준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소비의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비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인 녹색소비역량 증대해야







[구매 단계의 녹색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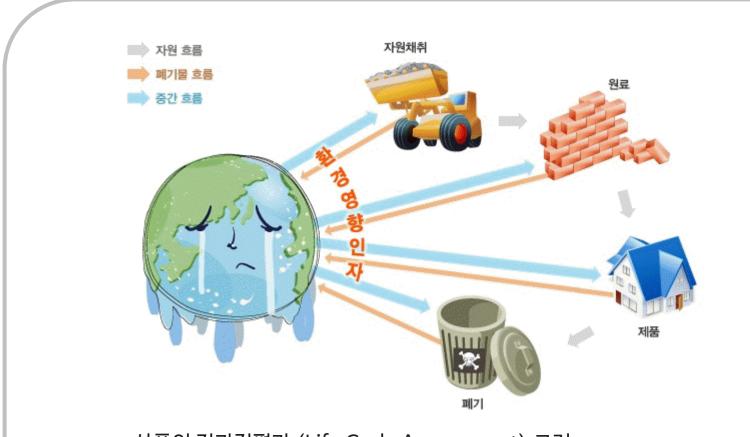
첫째, 녹색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매한다

- 진정한 녹색상품이란: 제품의 생성부터 폐기, 처리과정, 즉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 유통, 폐기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분석(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거나, 덜 부정적이어야 함
-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제품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로 확대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 생산자들이 자원순화사회 촉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 에너지사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시 목표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 표시하는 제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 개정안을 시행하며 철저한 근절의지
- 환경성 표시·광고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보다 엄격한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을 제시











: 제품의 생성부터 폐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























[구매 단계의 녹색소비]

둘째,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지표인 탄소발자국, 물발자국을 고려하여 구매한다

• 탄소발자국

-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저탄소형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 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형자가용으로 휘발유 40만 원어치를 소비할 경우 450.67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163그루의 소나무를 심어야 없앨 수 있는 양 ※기차로 100km 이동 시는 2.26kg 발생, 지하철 20회 탑승은 0.04kg이 발생

• 물발자국

- 제품 및 서비스의 원재료 취득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합산해 환경영향을 수치화한 것
- 국제표준기구의 검증 기준인 ISO14046의 요구조건으로 검증
- 예)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5,500리터가 사용되며, 이는 승용차를 250km 주행할 때 나오는 양 ※같은 양의 돼지고기는 4,800리터, 닭고기는 3,900리터가 필요























[구매 단계의 녹색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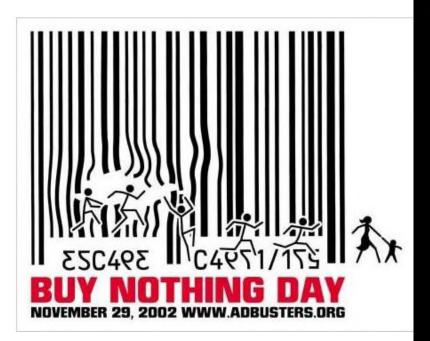
셋째, **바이낫씽데이**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를 실천한다

- 상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노동문제, 불공정거래 등 물질문명의 폐단을 고발하고 유행과 쇼핑에 중독된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소비행태의 반성을 촉구하는 캠페인
- 환경오염감축과 과소비추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1년 중 이날 하루 만큼은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
- 현재 65개국이 참여(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Eco Topic-

BUY NOTHING DAY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 캠페인은 1992년 캐나다에서 '테드 데이브(Ted Dave)'라는 광고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11월 마지막주에 열린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의 문제를 고발하고 쇼핑에 중독된 현대인의 생활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환경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 올해는 11월 28일 토요일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Buy Nothing Day" 공식홈페이지 https://www.adbusters.org/campaigns/bnd



나한민국의 장심 물을 이수는



[구매 단계의 녹색소비]

- 기타 실천 방법
 - 로컬 식품 구매
 - 제철 식품 구매
 - 채식 식단의 확대
 - 재사용제품 이용하기 등







[사용 단계의 녹색소비]

-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서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경향
- 버려지는 상품의 양이 증가된다는 것은 폐기 처리 비용 뿐 아니라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다량의 물이 사용되며, 지구의 자원이 소모된다는 뜻
- 소비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이들을 녹색소비로 전환하고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과 CO2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
- 환경부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www.kcen.kr)
 - : 생활 속에서 CO2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
- 예) 탄소가계부, 탄소발자국계산기, 탄소발자국기록장, 그린스타트경연대회







[사용 단계의 녹색소비]

- 기타 실천 방법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이나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 병 재사용
- 자동차 경제속도 유지, 같이 타기, 연비 높이기
- 저탄소발자국식생활(http://www.smartgreenfood.org)
- 한국 식탁 살펴보기
- 910km 이동한 중국산 양파, 당근, 마늘, 생강
- 8.330km 이동한 호주산 쇠고기와 양배추
- 9,600km 이동한 미국산 오렌지
- 2만 km 이동한 칠레산 포도























[처분 단계의 녹색소비]

- 재사용(Reusing)
- 한 번 사용된 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경우 바로 버리기보다는 그 물건에 대해 사용가치를 느끼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사례) 벼룩시장, 상설매장, 아름다운가게,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www.greenshop.or.kr)

- 우리나라의 빈 병 회수율은 일본, 캐나다, 독일, 핀란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사용률은 85%로 일본94%, 캐나다, 독일, 핀란드의 98%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빈 병 재사용 횟수가 8회인 데 반해, 다른 나라들은 최소 15회에서 30회에 이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병의 파쇄율은 다른 나라의 1~4%에 비해 10%로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가 재사용률을 85%에서 95%로 늘린다면 경제적 편익은 562억 원이고, 재사용 횟수를 8회에서 20회로 증가시킨다면 환경적 편익은 17억 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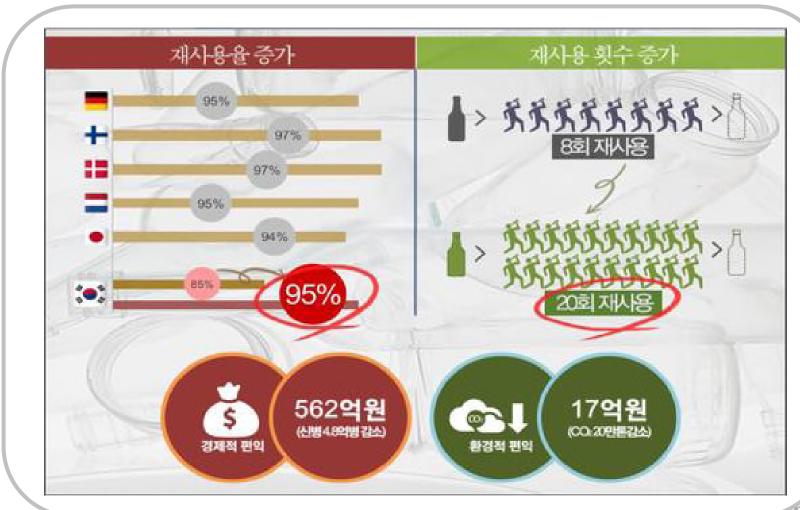


West A	1	베주요국	1-1-	. 6 1	10	19		
. 1890	4.0.4)	(0)			1	4
	대한민국	일본	7HL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集	일	핀	반드
회수용 [재사용율]	95% [85%]	98% [94%]	98%	[96%]	98%	[95%]	98%	[97%]
亚纳基	10%	4%	2	%	3	%	1	%
재사용 횟수	801	289	15~20期		199		3081	
대표제품	360ml 소주 500ml 맥주	340ml 맥주	340ml 맥주		330ml 맥주		330ml 맥주	
보증급부과대상	재사용용기	재사용용기	재사용	1회용	재사용	1회용	재사용	1회용
맥주가격	1,500원		2,000원	-	1,300원	1,750원	3,000원	3,3002
보증금액	40~50원	78원	115원	115원	116원	363원	145원	290원
제품가격대비 보증금 비율	1/30)	1/17.4		1/11.2	1/4,8	1/20,6	1/11.4
최저보증급 ~최고보증급	20~300원	78~780원	59~	16291		·465원 기준)	145~	750원



けかいかい おきのたと







대한학의 점을 이후는



[처분 단계의 녹색소비]

- 재활용(Recycling)
-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가공처리에 의해 다른 용도 또는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

표 6-1 재활용사례

재활용된 폐자원	새 상품
금속캔	철근, 자동차부품, 새 금속캔
유리병	글라스비드, 글라스타일, 글라스블록, 새 유리병
발포성수지(스티로폼)	건축몰딩, 액자프레임, 경량콘크리트, 부직포, 조립식발판
알루미늄캔	비행기, 자동차, 카메라 부품, 알루미늄배트, 새 알루미늄캔
베트병	부직포, 페트와이어, 페트끈, 옷걸이, 솜
플라스틱	펠릿, 사출제품, 건축용품, 경기장 의자, 놀이터 놀이기구, 마네킹
종이팩	두루마리 휴지, 미용티슈, 박스
닌문지, 종이	책, 재생용지, 상자, 고양이 변기, 달걀박스, 빌딩 절연재

출처: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http://www.kora.or.kr/, Teachers Pay Teachers http://www.teacherspayteachers.com







RECYCLED MATERIAL		NEW PRODUCT	NEW PRODUCT	NEW PRODUCT
19	->	100	Section 1	
WIN COM	-	Tim Nac.	00	M.M.
	-	COMMIT COMMIT	A	
COPY PAPER	-	hisus	TOUT PANS	MORE COMP PARKS
PARK T	_	STADIUM SEATS	rosgs	HASTIC DIRECT







표 6-2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6 72 — -11-1	타는 쓰레기		
종이류	신문지, 책, 공책, 사무종이,	부드러운 과일 껍 질, 잘게 자른 수박	기저귀, 오염된 비닐·종이·박스 등		
	우유팩, 박스 등		동물뼈, 달걀껍데기, 조개껍데기, 커피		
캔과 고철류	통조림캔, 알루미늄캔, 냄비, 프라이팬, 못, 철사, 도구 등	껍질, 배추, 무, 기 타 소금기나 매운 맛을 없앤 음식물	나 차, 한약 찌꺼기, 핵과일씨(복숭아 씨, 자두씨, 대추씨 등), 고추씨나 고		
병류	음료수병, 술병, 주스병 등	XE WE G IE	추, 마늘이나 양파, 옥수수 껍질, 통수 박이나 통배추 등		
플라스틱류	페트병, 세제용기, 간장병, 식용유병, 고추장팩, 우유용		그 외 기타 비재활용 쓰레기		
	기등		안 타는 쓰레기		
비닐류	과자나 라면 봉지, 스티로 폼, 비닐봉지 등		사기그릇, 항아리, 내열냄비나 반찬통, 화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처분 단계의 녹색소비]

- 업사이클링(Upcycling, 새활용)
-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
- 사회적 기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기업들의 좋은 사업 아이템 : 폐현수막으로 가방이나 화분을 만들거나 폐소방호스로 가방을, 폐기된 옷이나 넥타이 등으로 새로운 옷이나 지갑을, 해안에 버려진 빈 병들을 치즈트레이로 탄생시키는 등
- ▶한국업사이클링디자인협회(http://kud.kr): 000간, 터치포굿, 레:코드, 바다보석, 세컨드비, 에코파티메아리, 하이사이클, 리틀파머스&슬로우바이쌈지, 클라우드잼, 프라운드, 아자인원오원, 리브리스, 리베르디, 오도아
- ▶세계 업사이클링 기업들(약 250여 개 활동)

알케미굿즈(Alchemy Goods): 폐타이어, 자동차 내 안전벨트 활용

인도네시아의'인도솔(indosole)': 폐타이어를 이용해 신발 밑창 제작

캄보디아 '스마테리아(Smateria)': 못 쓰는 그물, 모기장이 가방, 소품으로

스위스프라이탁(FREITAG): 화물차 방수덮개로 가방을

패션업체: KALLIO, SWORD & PLOUGH, REFORMATION, TRMTAB, SEAMLY.CO, RECLAI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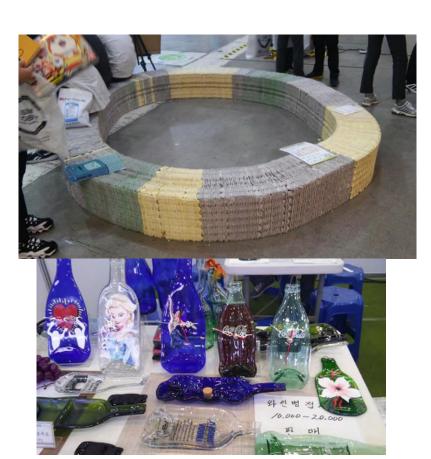


















다른 생각 다른 견해



소비를 줄이면 경제가 위축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 토론해봅시다

- 1. 녹색소비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방해하는가? 녹색소비와 자본주의경제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는 없을까?
- 2. 내가 가진 물건 중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분리해 보자.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나는 왜 소유하고있나?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 3. 소비자들의 녹색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나 빈 용기 보증금 인상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들을 제안해 본다면?







녹색소비의 이해를 돕는 책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2016)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양철북



사이토 겐이치로 (2016),

전기 없이 우아하게,

<u>티티</u>



박경화(2015),

<u>지구인의</u>

도시 사용법,

휴



루스 스타일스(2015),

<u>에콜로지스트</u>

가이드 패션,

가지



위르겐 로이스 외 (2010),

지구와 바꾼 휴대폰,

애플북스



비 존슨(2014),

<u>나는 쓰레기 없이</u> 산다,

청림Life







녹색소비의 이해를 돕는 영상





불편한 진실

(2006년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녹색소비의 이해를 돕는 영상





지구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